

「東亞엔지니어링」을 찾아서

原子力등 電源설계용역위해 1976年창립 종합「엔지니어링」업체로 착실히 成長

1976年 코리아카이저 엔지니어링 發足

동아엔지니어링(주)의 설립은 1976년 동아건설산업(주)과 미국의 Kaiser Engineers & Constructors Inc. 간 합작으로 「코리아카이저 엔지니어링(주)」의 상호로 출발한 것이 그 효시가 되었으며 당초의 설립목적은 原子力발전소를 위시한 火力발전 등 「에너지」산업과 기타 중공업분야, 건설 등에 고급기술 용역을 제공하는데 있었다.

그후 1982년 「東亞그룹」내에 별도의 土木, 建築, 通信분야 전문기술 용역회사인 「(주) 東亞엔지니어링」을 흡수합병으로 「동아엔지니어링(주)」의 상호로 새출발하였고 양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인력을 통합함으로써 명실공히 플랜트부문과 토건, 환경, 통신 부문을 망라하는 종합엔지니어링업체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동아엔지니어링(주)는 당초 설립배경 및 발전과정이 여타 플랜트엔지니어링업체와 그 성격을 달리하는 다소 독특한 면을 보이고 있다. 1977년 국내 최초로 저질국산 무연탄 및 중유혼소식화력발전소인 서해화력 1, 2호기 건설을 위한 타당성조사에서부터 기본설계, 세부설계,

구매지원, 건설감리 및 시운전자문 등 선진 플랜트엔지니어링의 전과정을 성공리에 마침으로서 국내 발전분야 엔지니어링기술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후에도 국내외발전설비 등 에너지분야의 엔지니어링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오면서 회사의 중점 용역분야로 육성발전되어 왔다.

현재 동아엔지니어링(주)의 국내외 사업수행을 위한 업(業) 등록현황은 총 18건으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플랜트 및 토건, 환경, 통신 등 전문기술부문의외에도 ADB, IBRD 등 세계 기구에 기술용역업체로 등록되어 있다.

또한 해외건설업면허, 산업설비수출업체등록 및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지정, 일반측량업과 기타 쓰레기 종말처리시설, 오수정화시설, 오염방지시설(수질, 대기, 소음, 진동),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등록과 전문건설업(상하수도, 설비부문), 토목시공감리전문업 등이 등록되어 사업영역을 넓혀왔다.

세계의 이목 끈 리비아 大水路 프로젝트

회사설립이래 17년동안 발전설비를 위시한 플랜트 및 토건분야, 환경, 조정, 통신분야를 망라하여 대소 340여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관련기술과 경험을 축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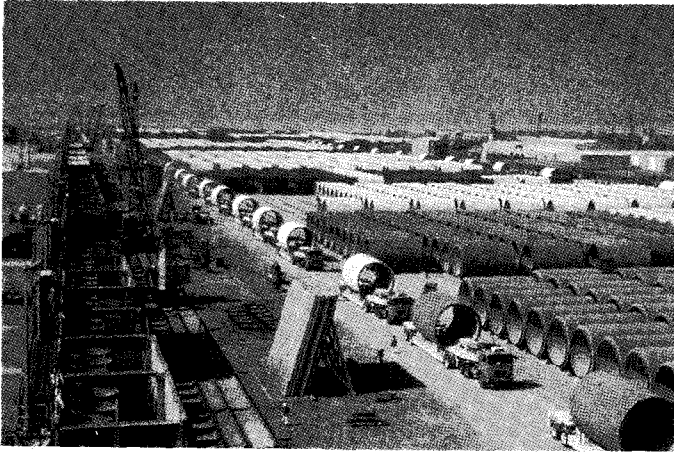
특히 그룹차원의 「프로젝트」인 “리비아 대수로공사”의 설계부문에 관여함으로써 대단위 PCC파이프 生産工場 및 연관 Utility설비의 엔지니어링업무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사업이다.

거기에 천연가스터빈 발전설비 등 Plant부문과 장거리 송수관, 대규모저수조, 대단위 취수설비 및 전 System 운전, 보수설비, 통신 System설계에 관여함으로써 모든 기술분야에서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선진 설계 및 엔지니어링 경험을 집중적으로 축적하였다.

그 결과 광범위한 기술 분야의 국내외 프로젝트를 수행 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과 경험을 가질만큼 성장하였다.

發電설비 등의 설계용역은 획기적 사업

국내 주요 프로젝트용역수행 실적을 살펴보면 발전설비분야에서 한국전력 및 공단에서 발주한 西海火力발전소, 복제주 및 남제주화력발전소, 半月공단熱併呑발전소 및 열공급망, 西仁川複合火力발전소, 일산집단 에너지공급을 위한 열병합발전소 건설용역외에 기타 다수의 발전관련 설비 및 부대설비 설계용역을



〈「리비아」大水路送水管 생산을 위한 현지공장〉

환경부문, 통신부분등
첨단분야에도 진출

「리비아」大水路프로젝트 참여, 세계적명성얻어 ISO9000국제품질 인증 취득이과제

수행하였다.

그밖에 光陽제철 1, 2, 3기 발전설비 및 浦港제철 12호기 발전설비용역을 수행함으로써 발전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을 축적해왔다.

또한 에너지 수송(Pipe Line)분야에서 한국석유개발공사에서 발주한 두차례의 전국송유관건설 타당성조사와 일정구간의 설계 및 공사감리를 수행하였으며,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한 수도권 LNG 가스 공급망설계, 영남권 LNG가스공급망설계 및 제3LNG인수기지건설타당성조사와 전국가스공급망 통제설비 등의 설계를 수행하였다.

첨단지동설비 갖춘 仁川港糧穀 터미널 용역

일반산업설비분야에서는 국내 최초의 첨단지동설비로 설계된 인천곡물입출하 및 저장을 위한 仁川항양곡터미널건설 용역업무 수행은 특기 할만하다.

그 밖에 군산항 및 목포항양곡터미널 건설, 울산항 석탄부두 하역기계화설비 등 물류부문 프로젝트 용역을 수행했다.

지하철 부문은 서울시에서 발주한 3호선 수서차량기지 지하철 7호선, 8호선, 6호선, 대구지하철 1호선, 5호선(부분적으로 관여)에 대한 설계, 감리, 계측분석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완성시켰다.

국내의 토건분야 주요실적을 보면 도로 및 공항부문, 토질 및 도시계획부문, 조경부문 수자원부문, 철도부문, 항만 및 해안부문, 관개배수부문, 건축부문, 환경 부문에 대수 프로젝트 120여건을 완공시켰다.

또한 통신부문에서는 통신케이블 및 관로공사실시설계, 장기전화통신선로망 계획설계, 지하철 신호통신 등 80여건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환경부문에도 '85년에 처음으로 진출하여 그간 사업영역확대와 함께 36건의 독자 환경분야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450명 기술자 포용

東亞엔지니어링은 17년간 국내외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현재 기술사 23명, 기사1급 127명을 포함한 450명의 기술자로 구성된 중규모의 종합기술용역회사이다.

그동안의 축적된 프로젝트 경험과, 축적된 기술로 다가오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여 획기적인 회사체질강화를 위한 경영혁신 실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Workstation Hardware를 포함한 PDS Tims, Microstation 및 배관, 구조, 건축, 전기관련 Software 등 최신 3D

CAD System을 보장 도입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고도의 설계운용환경을 구비하였다.

아울러 국제화에 대비한 외국어 구사 능력제고를 위한 어학교육프로그램과 국제감각함양을 위한 각종 「세미나」 참여 및 강사초빙교육, 사내직무교육 등 다양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수립하여 '94년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다.

UR대비, 국제수준의 능력구축

업종다양화로 취약부문 및 Chemical 분야 진출 및 해외영업기능강화와 사업부별 책임운영체제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근무분위기의 획기적 개선 등 체제정비, 사내정보관리체제구축, 기존분야별 외국기술제휴선의 확대로 UR에 대비한 국제수준의 Engineering 능력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ISO 9000 국제품질인증취득을 위한 실무추진팀 구성을 완료하고 '94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있어 '94년도를 회사운영의 고도화, 국제화를 지향하는 기반구축의 원년으로 삼고 동아엔지니어링은 오늘도 열심히 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